

김주형, PGA 투어 머틀비치 클래식 첫날 공동 31위...선두와 5타 차

등록 2026.05.08 10:13:03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김주형. 2026.02.22.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머틀비치 클래식(총상금 400만 달러) 첫날 공동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주형은 8일(한국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둔스 골프 앤드 비치 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쳤다.

2언더파 69타의 김주형은 닉 던랩, 에릭 콜(이상 미국), 마티 슈미트(독일) 등과 함께 공동 31위에 자리했다.

7언더파 64타로 단독 선두를 꺾은 마틴 레어드(스코틀랜드)와는 5타 차다.

PGA 투어에서 3승을 기록 중인 김주형은 올 시즌 10개 대회 중 최고 성적이 발스파 챔피언십에서 거둔 공동 18위로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다.

김주형은 같은 기간 시그니처 이벤트인 트루리스트 챔피언십에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해 허들이 비교적 낮은 이번 대회에서 시즌 첫 톱10을 노린다.

1번 홀(파4)에서 출발한 김주형은 4번 홀(파5)에서 첫 버디를 낚았다.

후반 9개 홀에선 10번 홀(파4)과 17번 홀9(파3)에서 버디를 추가했고, 12번 홀(파3)에서 보기 하나만을 범하며 첫날을 마쳤다.

한편 단독 선두 레어드 다음으로는 에런 라이(잉글랜드)와 나카지마 게이타(일본)가 공동 2위(6언더파 65타), 마크 허버드, 존 밴더란, 폴 피터슨(이상 미국)이 공동 4위(5언더파 66타)를 달렸다.

미국 교포 김찬은 1언더파 70타로 공동 42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